

## 오리사 환경 개선으로 축산인의 자존심 지키기



**곽춘욱**  
(주)건지 대표이사

오리업계는 지난 겨울이 유난히 괴로운 시간이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하여 애써 사육한 오리가 전국적으로 200만수 이상 매몰되고, 그 중 종오리가 30% 이상이나 매몰되었다. 오리뿐 아니라 HPAI의 직간접 영향으로 토종닭, 종계까지 파급된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는 가히 가금산업을 불안지경에 빠트렸다. 다행히 육계에서는 HPAI 양성반응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하나 총체적인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또한 피해결과만 있을 뿐 아직도 발병원인이나 치유방안에 대하여 누구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그 추위를 무릅쓰고 관계공무원은 물론 농민들이 방역소독에 총동원되어 농장은 물론 도로마다 초소를 설치하여 적지 않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1. HPAI는 후진국 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혹자들은 아예 ‘HPAI는 후진국 병’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마땅한 항변도 못하고 마치 죄인인 양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이며,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쫓값을 몽땅 축산인이 뒤집어쓰는 꼴이다. HPAI가 오면 가금분야에서, 구제역이 오면 중대가축 사육농가가 그렇다. 정말 축산인은 죄인인가?

HPAI를 ‘후진국 병’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나라는 축사환경도 열악한데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HPAI가 발병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속 단해 버린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육밀도를 규제하고, 축사환경을 개량시키는 것만이 대안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관계업에 종사하는 자는 심각하게 멍들어갔고, 심지어는 그 귀한 목숨까지 버렸다. 이즈음에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철새에서 도래한 질병 같다”라는 추측만 난무한 상황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이번에 HPAI가 발생한 농장은 대체적으로 축사건축물이 다소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듯 하고, 불완전한 축사는 과감하게 보강하여 오리의 생활사에 적합한 구조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복지농장수준은 아닐지라도.

물론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따르겠지만 질병발생으로 소요되는 일정한 부분만 정부가 사전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악순환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축산은 과거 아무나에서, 등록제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됨으로써 전문 축산인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지와 상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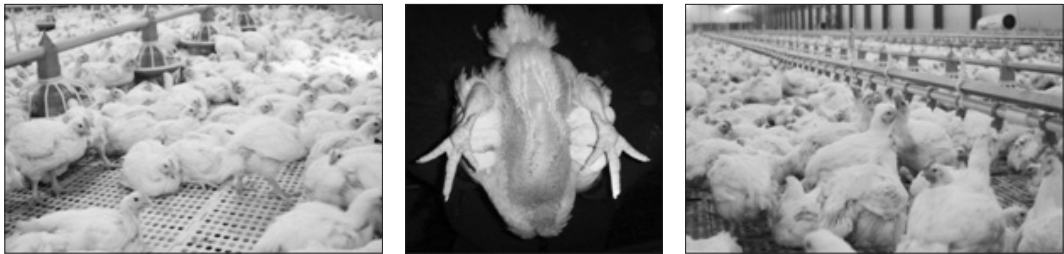
## 2. 축산인의 의식전환

HPAI가 진정 철새에서 도래했는지 여부는 차치해두고, 차제에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 되짚어보아야 한다. 즉, 작금의 오리사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우스형 축사가 많다. 과거에 지어진 오리사는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이나 보온덮개를 덮어 오리를 사육하고, 봄가을은 물론 겨울철 저온기에도 성오리사에는 난방과 환기



가 무시된 채 축벽을 개방하여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절대적인 이유가 자본력 이고, 또한 주변에서 너도나도 그렇게 사육하니 내가 그렇게 사육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다수결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정온동물(定溫動物)인 오리에게 적당한 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료섭취가 늘어 사료요구율이 높아짐은 물론 저체온증(低體溫症)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항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예측해볼 수가 있다. 즉, 항병력이 약한 오리가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어 각 개 농장은 물론 주변농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마치 환절기에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체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질환을 더 겪는 것처럼 말이다.



〈고상식 축사 및 출하하는 닭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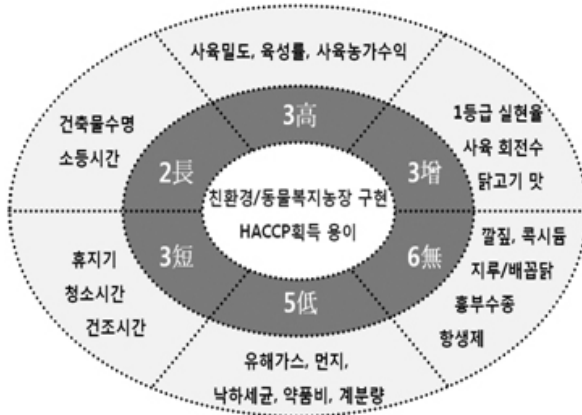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과거에 비하여 건축비가 높아졌고, 그 결과 보온은 물론 냉난방비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정답은 가까이에 있다. 축사는 나의 생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이자 나의 삶이기에 자동차나 주택보다 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설픈 자존심 때문에 자동차나 주택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는 의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자동차는 기껏해야 5~10년이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지만 축사와 설비는 30~5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자신의 자산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하여 생산요소에 더 투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지향의 물결에 편승하여 소비재에 불과한 자동차나 외관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솔하게 돌아보자는 것이다.

또한 내용의 질보다는 양(量)에 지나치도록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육 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효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농가들을 간혹 만나다 보면 절대율(絕對率)과 절대량(絕對量)을 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축산물들은 절대량이 많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율

이 높아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절대율은 생산성 이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생산효율 즉 원가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옆집하고는 물론 옆 나라하고도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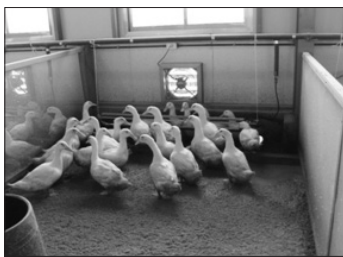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료나 약품은 이제 세계수준에 놓여 있다. 절대율에서 갈 길이 먼 분야는 환경분야와 우리들의 관념이 있을 뿐이다. 즉,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율에서 절대 이길 수 없고, 자본력이 미약한 현실에서 절대량은 더더구나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 3. 고상식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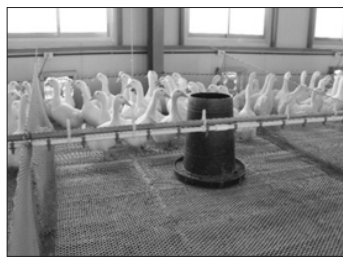


〈고상식 축사의 특징점〉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상식 축사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깔짚을 전혀 깔지 않고 축사바닥으로부터 일정높이에 플라스틱바닥재를 깔아 오리는 바닥재 위에서 생활하고, 배설물은 밑으로 떨어져 수시로 배출됨으로써 위생적인 사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도 고상식 축사를 설치하여 대형 닭을 사육하면서 생산성향상은 물론 1등급 출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특히 지루나 배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평사 오리사〉



〈고상식 오리사〉



〈고상식 축사〉

정도로 완벽하여 고상식 기사에서 사육된 닭고기만을 고집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리농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깔짚문제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배설량도 많지만 배설물의 형태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깔짚을 보충해주어야 하고, 이로 인한 인력부담은 물론 각종 비용 및 질병은 총체적인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절대율을 낮추게 한다.

#### 4. 결론

누구나 아픈 기억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아픈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 아직까지 HPAI에 대한 확고한 전염경로나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할 수만은 없다. 아픈 기억을 빨리 떨쳐버리고 다시 주변정리를 하고 재무장하여 나아가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곧 최선의 길이다.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곧 오리의 생산성향상은 물론 원가절감과 병행하여 수익성을 높여주는 길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제 장거리 마라톤선수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멀리보고 설계하는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반복적으로 HPAI로 인하여 애간장을 태우며 정부의 지원금만을 기대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대한 산업의 역군이다. 스스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책무를 다할 때 국가의 미래와 더불어 축산인의 자존심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